

제13호

발행일 : 서기 2016년 3월 14일(월)
창간일 : 서기 2010년 3월 1일
구독신청 : (043) 218-2158
FAX : (043) 212-2158
H.P : 010-3482-3158

安東金氏 按廉使公派宗會報

발행인 : 김태문
편집인 : 김태완
발행처 : 안동김씨안렴사공파총회
충북 청원군 오창읍 두릉유리로 1130-18(창리 2-3)
수도권중회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4길 6 (초동18-2)
초동빌딩 303호 TEL. 02)2277-4025

인사말씀 謹賀新年



회장 김태문

존경하는 종인 여러분 그리고 경향 각지에 계시는 종친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다.

우수에는 대동강 물도 풀리듯이 요즘의 남북 관계 또한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듯이 경제도 소생하길 바라오며, 지난 한해 물심양면으로 보내주신 성원 잊지 않겠습니다.

지난 하계수련회와 향사 행사에도 음으로 양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안렴사공파총회 총회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해마다 영모재 관리인이 바뀌어 향사에 참석하신 분들께 불편함을 드려 죄송하고 올해 향사에는 잘 준비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묘역관리에도 더욱더 신경 쓰겠습니다.

금년 한해로 문집 발간을 마무리 할 예정이오며 종인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대동보 관계는 인터넷 공개 시 열람하시어 탈. 오자가 있는지 잘 살펴보고서 연락 주시면 수정하여 훌륭한 대동보가 만들어 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양해부탁 드리며 올 한 해 잘 마무리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 만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건강 하십시오.

2016년 丙申年 正月에 안동김씨 안렴사공파총회 회장 태문 올림

안렴사공파 제 26차 총회 개최



지난 2월 19일(금요일) 오전11시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소재 새마을금고 4층 대회의실에서 안렴사공파 제26차 정기총회가 100여명의 종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용주 파총회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총회는 성원보고 개회선언 국민의례 인사소개 회장인사 축사 전년도 결산보고 신년도 예산심의 안건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국민의례 후 태문파총회장은 원로 종친을 소개하고 나서 총회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종친께 감사한다면서 금년에는 재정자립에 기여 할 수 있는 창고를 신축하겠다고 지금 추진중인 대동보편찬이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자고 하였고 영만 문영공종회장(파총회 명예회장)은 축사에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총회업무에 진력하는 임원진에 감사한다면서 앞으로 더욱 화합하여 총회발전에 노력하자고 하였다. 전년도 결산보고는 먼저 홍식 감사의 감사보고를 듣고 나서 태완 총무의 결산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결산서상의 계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은후 승인하였고 금년도 예산 또한 총무의 개략보고와 대동보 수익금 전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은후 원안을 의결하였다. 안건토의에서 제기된 종중소유의 농지에 창고를 건립하는 건에 대하여 파총회장의 설명이 있은 후 건물신축에 대한 모든사항을 회장단에 위임하여 처리토록 하였고 기타토의사항으로 묘소관리와 향사에 대하여 묘소입구부터 묘소에 이르는 길을 다듬어 줄 것과 향사시 식사문제등을 개선키로 하였다.

◆2015년도 안렴사공파 결산 및 2016년도 예산요약

◆2015년도 결산서

• 세입 : 50,931,726원 • 세출 : 45,356,400원 • 잔액 : 5,575,326원

Table with 5 columns: 구분, 항목, 2015년도 예산액, 2015년도 결산액, 증감, 비고. Rows include 합계, 전년도 이월금, 임대수입, 기부금, 정기예금, 차입금, 수련회비, 잡수입, 사무비, 분담금, 시설비, 묘역관리비, 제세공과금, 경비, 업무추진비, 차입금상환, 정기에금, 예비비.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 세입 : 234,981,326원 • 세출 : 234,981,326원

Table with 5 columns: 구분, 항목, 2015년결산액, 2016년예산액, 증감, 비고. Rows include 합계, 전년도 이월금, 임대수입, 기부금, 정기예금, 예금이자, 차입금, 수련회비, 문영공종회전입금, 대동보수익금, 잡수입, 사무비, 분담금, 시설비, 묘역관리비, 제세공과금, 교통비, 제경비, 업무추진비, 차입금상환, 재실수리비, 정기에금, 예비비.

안렴사공파 세일사 봉행



지난해 11월 16일(월요일 음 10월 5일) 오전 11시 안렴사공묘역에서 세일사(享祀)가 봉행되었다. 이날 향사는 먼저 정간공(諱 永煦)에 대한 향사를 올리고 다음 영삼사사공(諱 蕝)께 다음으로 파

조이신 안렴사공(諱 士廉)께 향사를 올렸다. 이날 향사에는 익원공과와 서운관정공파에서도 많은 종인이 참여하여 묘역이 좁아 참제원들이 편안히 예를 드릴 수 없을 정도였다. 점심식사후에는 소윤공묘역인 채경묘원에서 소윤공3형제분(按廉使 侃, 節度史 漣, 少尹公 淪)과

知州使公 (諱 遇周)께 향사를 올렸다. 소윤공 3형제분을 한번에 예를 올리는 것은 안렴사공과 절도사공은 절손이되 있으므로 소윤공 자손들이 지금까지 봉사(奉祀)하고 있으며 채경묘원 조성



시에 세분의 묘역을 소윤공과 한곳에 나란히 조성하였고 그후 3형제분의 향사를 한번에 올리게 된것이다. 이어 현령공(諱 堉)자손들은 현령공 묘역인근의 군자감정공(諱 公衍) 재실에서 현령공께 향사를 올리고 이어 군자감정공께 향사를 올렸다.

구분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집례	대축	진설
정간공	선회(청주)	각영(서운관정공파)	명식(보령)	영만((진천)	성회(부여)	재성(묘하)
영삼사사공	석한(익원공파중회장)	재두(묘하)	용두(제학공파)	선회(청주)	성회(서울)	재성
안렴사공	용원(덕평)	재명(증평)	태완(김포)	선회	성회(서울)	재성

문단공(文端公) 선조의 글



문단공 우암 김주 선조님 글이 조선일보 (2016,2,17일자)에 실려 있기에 전재합니다. 선조님의 가계는 안렴사공의 長孫家系로 소윤공(諱 淪)- 지주사공(諱 遇周)-판교공(諱 丸)-감찰공(諱 宗孫)-군수공(諱 城)-안원군(諱 公亮)의 3남1녀)중 3남이시며 자손은 3남(정남,후남,계남)4녀이다. 1512(중종7년생으로 1531년(중종26년 19세)에 진사. 1339(중종34년 27세)에 별시문과장하

였으며 호당에 들고 대사헌부제학, 전라.황해감사, 한성좌우윤, 5조(吏.戶.兵.刑.禮曹)參判을 지냈으며 문장이 뛰어나고 바른말을 했다고 한다. 북경에 사신으로 가서 종계변무를 해결하신 후 그곳 객관에서 돌아가셨으며 이를 안타깝게 여긴 명의 황제는 자작나무로된 관과 예단으로 지폐(紙幣)를 보내 조문하였다.

조선조정에서는 증 정헌대부 예조판서 겸 지경연의금부사 화산군에 봉했으며 북경으로 부터 운구하여 여주 백양동에 예장으로 모셨다. 1590년(저선조23년) 광국공신 화산군에 책봉하였다. 1790년(정조14년) 시호를 문단으로 했다.시법에 따르면 박학문능(博學文能:박학하고 문장에 능함)을 문(文)이라하고 수례집의(守禮執義:예를 지키고 의를 견지함)를 단(端)이라한다.

조병추달(操柄推達)

1553년 김주(金澍 1512~1563 諱 文端)가 북경에 갔다. 밤중에 “주역”읽는 소리가 들려왔다. 깊은 밤 불 밝힌 방 하나가 있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그를 불러 물었다. 그는 절서(浙西)에서 과거시험을 보기 위해 북경에 온 수험생 이었다. 시험에 낙방하여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연관(燕館)에서 날품을 팔며 다음 과거를 준비한다고 했다.

김주는 그에게 비단을 선물하고 즉석에서 조선 부채에 글을 써서 주었다.“대나무로 깎은 것은 절개를 취함이요, 종이를 바른것은 깨끗함을 취해설세. 머리쪽을 묶음은 일이관지(一以貫之) 그 뜻이고, 꼬리 쪽을 펼치는 건 만수(萬殊) 다름 보임이라. 바람을 일령이면 더위를 씻어주고, 먼지가 자욱할 땐 더러움을 물리치지. 자루를 잡았으니(操柄) 배품이 내게 있어, 필요할 때 쓰다면 미뤄 달함(推達)문제없다. 오직 저 만물은 태극을 갖췄으니 한 이치 궁금하여 얻음이 있을진저. 아! 날품 팔며 오히려 ”주역“ 공부 너끈하니 어이 이 부채로 법도 삼지

않으리(削以竹, 取基節也. 塗以紙. 取基潔也. 束厥頭 一以貫也. 廣厥尾. 殊所萬也. 風飄飄. 熱可濯也. 塵漠漠. 汚可却也. 操者柄. 施在我也. 用必時. 推達可也. 惟萬物. 具太極也. 究一理. 爰有得也. 噫!賣免猶足以作易. 蓋於茲扇以爲則)” 부채는 살이 하나로 꿰어져 손잡이가 되고, 좌르륵 퍼면 가지런히 펼쳐진다. 여기서 그는 ‘주역’의 이일만수(理一萬殊)를 읽었다. 하나의 이치가 만물 속에 저마다의 모습으로 간직되어 있다. 그러나 조병추달(操柄推達). 즉 자루(柄)를 꼭 잡고서 확장하여 어디든 이를 수가 있으리라. 그대가 지금은 품을 팔며 고단하나 이렇듯 공부에 힘쓰니 앞날이 크게 열리리라는 덕담이었다..

10년 뒤인1563년에 김주가 변무사(辨誣使)로 다시 북경에 갔다. 하루는 한 재상이 숙소로 김주를 찾아왔다. 살펴보니 예전“주역”을 외우던 그 품팔이꾼 이었다. 김주의 격려에 고무되어 부채를 쥐고 공부해 과거에 급제해서 예부시랑이 되어 있었다. 그의 주선으로 종계변무(宗系辨誣)의 해묵은 숙제를 해결 할 수 있었다.

조병추달! 자루를 꼭 잡고 필요할 때 미루어 쓴다. 눈 앞의 삶이 고단해도 뜻을 꺾지 않는다.

정민 한양대 교수 . 고전문학 전공



종계변무(宗系辨誣)란

조선태조(이성계)의 아버지는 이자춘이나 명나라 대명회전에 고려 말 권신 이임임의 아들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고려의 4왕을 시해하고 왕이 되었다고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이를 수정하기 위하여 수차례 사신을 명에보내 교정하려 노력하였으나 이를 이루지 못하다 우암 선조께서 사신으로 가서 해결한 종계 즉 조선왕조의 혈통 문제로 당대의 가장 큰 외교문제를 우암 선조께서 해결하신 것 이다.



[제공 김태운]

종계변문사행차도 ↑

송천서원 춘계제향 봉행 알림



송천서원 춘계제향이 2016년 4월26일(음3월20일)에 봉행 되니 많은 종원의 참석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송천서원은 오창읍 양지리에 있으며 안렴사공을 주벽으로 15분의 선현이 배향된 충북 지방의 서원입니다.

- 本孫有司 金在晟
- 本孫有司 崔鎮基
- 本孫有司 李旻浩
- 本孫有司 李賢雨
- 本孫有司 李舜寧
- 本孫有司 趙誠奎
- 本孫有司 李鍾宇
- 都司 金泰文
- 松泉書院 院長 朴英淳

※日時: 二千十六年四月二十六日(陰三月二十日) 上午十一時
 ※場所: 清州市 淸原區 梧倉邑 陽地里 松泉書院
 西紀二千十六年四月 日

丙申年春季祭享奉行案内
 本松泉書院에서는 左記와 如히 春季祭享祀를 奉行코저 하오니 掃萬參祀하여 주시기를 敬望 하나이다.

전호에 이어서 계속

송천서원상량문

●번역 : 김국희

居然二百年來。有此六七公作。德業之成就雖異。若其道則同歸。世代之先後或殊。顧其名則共卓。欽風慕義。彌曠久而不衰。揚虔妥靈。尙遷就而未果。幸今士論之齊發。爰暨朝宰而同聲。輟錢帛。而輸財遠者近者。鳩木石。而董役經之營之。
 어언 이백여 년 사이¹⁹⁾에 이렇듯 훌륭한 예닐곱 분이 나왔으니, 덕과 학업이 성취함은 비록 다르지만 그 도는 같은 곳으로 귀결되며, 세대의 선후는 흑시 다르지만 그 명성을 돌아보면 모두 탁월하다. 풍모를 공경하고 의모를 그리워함은 시간이 지나도 쇠하지 않아, 경건함을 드날리며 영령을 기리고자 하는데 오히려 계획대로 되지 못하였다. 다행이 지금 선비들의 여론이 일제히 일어났으니, 이에 조정의 관리까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돈과 비단의 자금이 떨어지자 원근에서 재물을 보내와, 나무와 돌을 모으자 서로 다투듯 짓고 세우게 되었다.

相彼桐岬之右岡。得此松泉之嘉址。龍山背聳。迥接鷲嶺之磨蒼。虎溪前彎。近挹鵲川之橫素。卜云其吉。明神庶幾來矣。山若增高。衆甫於焉仰正。

저 오동(서원 건물)의 오른쪽 언덕을 보라. 여기 송천의 아름다운 땅을 얻었구나. 용산(송천의 뒷산)이 뒤에 솟아 둘러 있는데 멀리 고개(鷲嶺)는 하늘과 닿아 있고, 호계(송천의 앞 시내)는 앞으로 구비쳐 가지내(鵲川)가 둥지로 가로지르는 것을 잡고 있다. 점복에서도 그 길하다 하니 밝은 신명이 아마도 잘 찾아올 것이요, 산이 더욱 높은 듯하니 많은 이들이 이에 우러르며 바로하리라.

惟蒸民之好懿德。寔出秉彝。顧鄉社之祭先生。有待今日。聊陳善頌。助舉脩樑。

오직 뭇 백성이 아름다운 덕을 좋아하여 떳떳함을 부여 잡은 것이요, 돌아봄에 향사에서 선생들(7분 배향위)을 제사함도 지금까지 이어왔구나. 좋은 노래로 즐겁게 들려 주어, 서원건물에 들보를 올리는데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이하 동서남북상하 6구는 들보를 들어 올릴 때 부르는 일종의 노동요이며, 때문에 동서남북상하의 각 한자 음에 맞춰 짝수 구절에 같은 운자를 사용한 한시 형식의 운문이다. 예, 東-紅-中 / 南-巖-衫)

拋樑東。朝來旭日照窓紅。遙瞻上黨浮空色。氣像巖巖在此中。
 (어영차) 동쪽 들보를 올려나 보세.
 아침에 해가 뜨니 창문을 붉게 비추네.
 멀리 상당을 바라보니 빈 하늘의 빛깔
 엄숙하고 엄숙한 기상이 이 안에 있구나.

拋樑南。清江一曲抱臺巖。詠歸佳興當春暮。時有和風起翠衫。

(어영차) 남쪽 들보를 올려나 보세.
 맑은 강물 한 구비 바위누대를 안고 흐르네.
 흥얼거리며 돌아오는 좋은 흥취는 봄날이 좋아
 때마침 온화한 바람이 비취 적삼에 살랑거리네.

拋樑西。重疊山光遠近齊。想得諸賢聯坐榻。如聞聲咳共携提。

(어영차) 서쪽 들보를 올려나 보세.
 겹겹 쌓인 산빛이 머나 가까우나 같구나.
 여러 현자²⁰⁾들이 한 자리에 둘러 앉았으니
 기침 소리 웃음 소리 함께 들리는 듯...

拋樑北。芳樹葱瓏望如織。日午齋房閱古書。諸生斂拱勤探蹟。

(어영차) 북쪽 들보를 올려나 보세.
 좋은 이영, 나무를 엮은 것이 베짖듯이 보이누나.
 날마다 서재에서 고서를 읽노라니
 여러 학생들은 공수하고 부지런히 진리를 탐구하네.

拋樑上。氛靄澄清天氣朗。肅穆靈儀儼若新。顛然百代恭瞻仰。

(어영차) 위쪽 들보를 올려나 보세.
 아지랑이 깨끗이 개어 천기가 명량하네.
 정숙한 위패 영령의 위의 처음처럼 의젓한데
 공손한 자세로 백대까지 우러러 보리라.

拋樑下。逝水滔滔流不捨。尙友隆師道所存。一時共圍崇文化。

(어영차) 아래쪽 들보를 올려나 보세.
 흘러가는 물은 도도히 흐름을 멈추지 않네.
 벗을 숭상하고 스승을 높임은 진리를 보존하는 것
 모두다 같이 이 공간에서 선현의 문화를 드높이세.

伏願。上樑之後。棟宇不傾。淵谷無改。齊峙並享。可見尊尙之誠。日遇月征。寧無作興之效。膾食不愆於永世。祀事孔明。絃誦靡替於方來。儒豐丕變。

들보를 올린 뒤에 기둥과 지붕이 기울지 말기를 엮드려 기원하노라. 사당을 세워 고갯마루와 나란히 높여 함께 제향을 올리니 선현을 존중하는 정성을 볼 수 있으며, 날마다 만나고 달마다 가니, 어찌 감흥하는 효험이 없을손가. 제사 상차림은 영원토록 소홀하지 않으니 제사 섬김도 크고 분명하며, 공부하는 소리 미래에도 바뀌지 않을 것이니 유학의 풍성함이 더욱 진작되리라.

19) 송천서원에 모셔진 7분의 생몰 시기로 보아 안렴사 김사렴으로부터 오촌 이대건까지 대략 200여년의 차이가 난다. 20) 서원에 모시는 7현을 뜻함.

